

# 『傷寒六書』의 성립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李基東 · 丁彰炫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The formarion process of 『Sang-Han-Yook-Suh』 and the influence for the furture generation

Lee ki-dong, Jeng chang-hyen, Baik you-sang.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o-Hwa, his courtesy name Sang-Moon and a pen name Chul-Ahm, wrote 『Sang-Han-Yook-Suh』 in Myoung period. Born in 1369 in the area of Yuh Hang,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5 in 1453.

He pitied the fact that doctors in those days relied only on 『Sang-Han-Ron』(a book reedited by Wang-Sook-Hwa) without any distinguishing standards in treatment. So he reorganized the diagnosis, treatment, theory, and prescription of diseases affected by the cold and wrote 『Sang-Han-Yook-Suh』 in 1445 in hope for his clinical experiences to be passed on to the future generation. 『Sang-Han-Yook-Suh』 is composed of six volumes-『Sang-Han-Swae-Un』, 『Sang-Han-Ga-Bi-Juhk-Bon』, 『Sahl-Cha-Choo-Bub』, 『Il-Je-Keum』, 『Chul-Kang-Mang』, and 『Myoung-Ri-Sok-Ron』

『Sang-Han-Yook-Suh』 was a big influence to the 『Eu-Hak-Ib-Moon』 by Lee-Chun in Myoung period in the part where it covered the diseases by cold. And considering that the same part of 『Dong-Eu-Bo-Gam』 by Huh-Jun from the Chosun dynasty referred to the 『Eu-Hak-Ib-Moon』 a lot, it is an inevitable fact that 『Sang-Han-Yook-Suh』 is a critical book in medicine today in studying the diseases derived from the cold.

key words : Do-Hwa, 『Sang-Han-Yook-Suh』, 『Sang-Han-Ron』, 『Dong-Eu-Bo-Gam』.

### I . 緒 論

인간은 자연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외부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외부환경은 인간이 성장, 생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古來로부터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순중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하였다.

하늘에는 五運이 있고, 땅에는 六氣가 있어, 인간은 五運과 六氣의 상호작용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특히 이 중에서 六氣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六淫으로 변화하여 인체 내부로 침범하면 인체는 병을 일으키게 되고,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병을 총괄하여 外感病이라 하였다.

外感病은 『黃帝內經』 이후로 漢나라때 張仲景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면서부터 비로소 傷寒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연구되어 清代에 이르러서는 溫病學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張仲景이 著述한 『傷寒雜病論』은 시대를 거치면서 遺失되었다가, 晉나라때의 王叔和가 이를 다시 재편집하였고, 그 이후 역대로 수많은 의학자들이 이를 연구 비판하면서 傷寒學說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明나라때의 陶華도 그 중 한사람으로 그의 대표적인 著書가 『傷寒六書』이다.

『傷寒六書』는 각각 『傷寒瑣言』, 『傷寒家秘的本』, 『殺車槌法』, 『截江網』, 『一提金』, 『明理續論』의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그 후에 편찬된 李挺의 『醫學入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우연히 『醫學入門』을 읽던 중 傷寒에 관한 내용이 기존 王叔和의 『傷寒論』 내용과 사뭇 다르고 독특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陶華의 醫學思想 및 『傷寒六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본문에서 陶華의 생애 및 『傷寒六書』의 저술년도, 『傷寒六書』의 저술동기, 학술의 연원, 의학적인 평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

하였다.

아울러 본 論文이 陶華 및 『傷寒六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II. 本 論

### 1. 陶華의 생애 및 『傷寒六書』의 저술년도

먼저 陶華의 생애에 관해 살펴보면, 康熙 23년에 나온 『浙江通志』에서 陶華에 대해 대략 이르기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餘杭사람으로서 병을 치료하는데 奇效가 있었다. 후에 省郡으로 와서 傷寒을 치료하였는데 한번 복용하면 다 나았으니 그 효과가 神效莫測하여 名聲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환자를 보지 않았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를 하찮게 여겼다. 그가 저술한 『傷寒六書』는 仲景이후로 한사람뿐이다”라고 하였고<sup>1)</sup>, 계속하여 “陶華의 號는 節菴이다. 洪武年대의 사람으로, 어려서 儒學을 공부하였는데 우연히 異人을 만나 石函遺書를 받아 마침내 軒岐의 학문을 정묘히 하였다. 漢나라때의 張仲景과 晉나라때 王叔和의 『傷寒論』이 매우 深奧하고 難解한데, 陶華가 크게 밝혔다. 永樂 연간(1403~1424)에는 醫學訓科에 징집되었고, 宣德 연간(1426~1435)에는 벼슬에 올랐다. 병을 다스림에 기이한 효과가 있어 세상에서는 그를 ‘陶一貼’이라고 불렀다. 95세에 생을 마쳤고, 子孫들이 그의 醫業을 이었다.”라고 하였다.<sup>2)</sup> 이상의 내용을 근거해볼

1) 『中國醫籍通考·傷寒六書』제인용 : “康熙二十三年「浙江通志」略曰：陶華，字尙文，餘杭人，治病有奇效，後來省郡治傷寒，一服即愈，神效莫測，名動一時，然非重賂莫能致，論者以是少之。所著『傷寒六書』仲景以後，一人而已。”(嚴世芸，『中國醫籍通考』，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1994，5284쪽)

2) 『中醫人名辭典·陶華』：“陶華，別號節菴，洪武年人，

때 그는 1369년에 태어나 1453년에 95세의 일기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傷寒六書』의 저술년도에 관해 살펴 보면, 일단 『傷寒六書』는 『傷寒瑣言』, 『傷寒家秘の本』, 『殺車槌法』, 『截江網』, 『一提金』, 『明理續論』의 육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저술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지만 모두 陶華가 거의 노년시절에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傷寒瑣言』과 『明理續論』의 저술에 관해서는 『傷寒瑣言序』에서 보인다. “내가 晩年에 아들을 얻었는데 弱冠의 나이를 지나면서 몸이 연약하여 病을 많이 앓았다. 생활습관이 나태하여 능히 스스로 강해질 수 없으니 반드시 이 道를 능히 받을 수가 없다. 밤낮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죽은 뒤에 病이 생겨 庸醫에게 몸을 맡긴다면 족히 生을 傷하고 性を 滅할까 두렵다. 孟子께서 이르시길 불효에 세가지가 있는데 뒤를 잇는 자손이 없는 것이 큰 것이라 하셨다. 아들에게 病이 많아 生을 救濟하는 道를 전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요절하여 조상들의 제사가 끊어지게 된다면 어찌 사람의 아비된 도리라 하겠는가? 내가 今年에 77세가 되어 쇠약함이 유달리 심해졌으니 노년 세월이 어찌 오래 지속되었는가? 밤낮으로 마음을 써서 『傷寒明理續編』을 緝成하였으니 論法이 비록 간략히 갖추어졌으나 口訣을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능히 마음으로 融會貫通할 수가 없다. 또한 『瑣言』一卷을 著述하니 文章이 비록 鄙俚하나 말이 簡單하고 뜻이 주밀하다.”<sup>3)</sup>라고 하여, 陶華의 나이 77세

무렵에 이 두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그 외 나머지 책들도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듯 한데, 『傷寒家秘の本』 중 <傷寒總論> 부분에서 이르길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傷寒을 전문과목으로 하매 실로 仲景先師의 빠진 뜻을 득하여 비록 萬全의 공은 없지만 열명 중에서 가히 팔구명은 살릴 수 있었다. 일찍이 책을 저술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여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 업을 잇는 자가 그 전함을 얻지 못하고서 욱된 이름이 행해질까 걱정되어, 장차 일생동안 肺腑에 쌓아온 語句와 집안에 숨겨놓고 전하지 아니한 오묘함 및 一提金, 殺車槌法을 하나하나 뒤에 기록한다.”<sup>4)</sup>라 하여 『傷寒家秘の本』, 『一提金』, 『殺車槌法』이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截江網』중 『傷寒』부분에서 이르길 “다만 내가 늙고 그대 역시 앞서사람의 어리석은 학문과 같아 병에 임하매 손을 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고로 장차 유지를 남겨 손에 응하고 마음으로 얻는 訣法을 편찬하여 책으로 만드니 이름하여 『傷寒證脈藥截江網』이라 한다. 아침저녁으로 곁에 두고 깨달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할지이다.”<sup>5)</sup>라고 하여 『截江網』 역시 그의 노년에 완성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6권의 책이 모두 陶華의 노년 시절에 지어졌는데, 다만 그 선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며 결국 명나라 正統 10년(1445년)에 『

成 『傷寒明理續論』. 論法雖略備, 非有師承口訣, 不能融會貫通於心. 又著 『瑣言』一卷, 文雖鄙俚, 然言簡意到.”(陶華,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 6쪽)

4) 『傷寒家秘の本 傷寒總論』: “吾老矣, 傷寒專科, 實得仲景先師厥旨, 雖無萬全之功 十中可生八九. 曾著有書, 不能盡心刻骨, 因今老邁, 後恐繼業者不得其傳, 有玷名行, 遂將一生所畜肺腑語句, 并家秘不傳之妙, 及一提金, 殺車槌法, 逐一語錄於後.”(『傷寒六書』, 앞의 책, 49쪽)

5) 『傷寒證脈藥截江網 傷寒』: “第恐吾老, 子亦猶前之昏學, 臨病無措, 故將遺旨, 應手得心訣法, 纂以成集, 名曰『傷寒證脈藥截江網』, 存與朝夕備覽, 以看省己之愚.”(『傷寒六書』, 앞의 책, 164쪽)

幼業儒, 遇異人授石函遺書, 遂精軒岐之術. 漢張仲景, 晉王叔和 『傷寒論』, 多深奧難解, 華大爲發明. 永樂時徵爲訓科, 宣德年致士, 治病有奇效, 俗稱『陶一貼』云. 卒年九十有五, 子孫世其業.”(李云, 『中醫人名辭典』,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781쪽)

3) 『傷寒瑣言·序』: “予晩年得子, 方逾弱冠, 柔軟多病, 習懶不能自強, 必非能受此道者. 日夜痛心, 懼夫吾歿之後, 有病委之庸醫, 足可以傷生滅性. 孟子云, 不孝有三, 無後爲大. 有子多病, 不傳以濟生之道, 一旦夭扎, 祖宗之祀事絕矣, 豈爲人父之道哉! 某今年七十有七, 衰邁殊甚, 桑榆之日, 豈能久照. 日夜用心, 以集

『傷寒六書』가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6)</sup> 하지만 모두 노년시절에 지어졌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서로 틀린 부분도 있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 때문에 후대 의가들의 비판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그의 저술로는 『傷寒治例點金』, 『傷寒治例直指』, 『傷寒直格標本論』, 『傷寒段段錦』 등이 있으나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고, 다만 『癰疽驗方』이 있어 『薛氏醫案』에 수록되어 있다.

## 2. 『傷寒六書』의 저술동기

陶華가 『傷寒六書』를 저술한 동기는 각 권마다 序의 형태를 빌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당시 의사들이 傷寒을 치료함에 뚜렷한 기준이 없고, 오히려 王叔和가 재편집한 『傷寒論』에 의존하여 傷寒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서 傷寒에 관한 診斷, 治法, 理論, 處方을 다시 정리하고 아울러 자신의 평생 임상경험이 後代에 전해지길 바랐다.

『傷寒六書』의 곳곳에서 당시 의사들의 傷寒치료에 대한 잘못된 바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며, 또한 『傷寒瑣言』 중 <辯張仲景傷寒論> 부분에서는 王叔和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불행하게도 이책(傷寒論)이 세상에 전해진지 오래되어서 잃어버린 부분이 자못 많다. 쫓나라때의 太醫令인 王叔和가 흠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얻어 차례를 완전히 하여 傳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 애석하게도 자신의 이론이 經典에 뒤섞이게 되어 억지로 깨어맞춘 것을 면할 수 없었다. 成無己가 이로 인하여 문장을 따라 注釋을 붙이고 아울러 빠지거나 의심되거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말이 없이 장차 겨울 傷寒의 처방과 溫暑病을 두루 설명함에 이르렀으니 그 잘못의 전해짐이 지금에도 그

치지 않고 있다.”<sup>7)</sup>라고 하여 당시 傷寒에 대한 잘못된 理論과 治法등이 모두 王叔和와 成無己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

陶華는 六書 각 권에서 序의 형태를 빌어 그 저술동기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傷寒瑣言序』에서는 “내가 晩年에 아들을 얻었는데 弱冠의 나이를 지나면서 몸이 연약하여 病을 많이 앓았다. 생활습관이 나태하여 능히 스스로 강해질 수 없으니 반드시 이 道를 능히 받을 수가 없었다. 밤낮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은 뒤에 病이 생겨 庸醫에게 몸을 맡긴다면 죽히 생을 傷하고 性을 滅할까 두려웠다.”<sup>8)</sup>고 하여 『傷寒瑣言』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엿보이며,

또한 『明理續論序』에서는 “庚寅年 겨울에 내가 病이 들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수개월이 되어 이로 인해 成無己의 『明理論』을 보니 단지 50證에 대하여 辯證과 研究가 詳細하고 明瞭하였다. 그 未備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에 보고 들은 바를 모아서 비교 분류하고 例를 덧붙여 斟酌하고 損益하여 마침내 하나의 책을 만들었으니 이름하여 『明理續論』이라 하는데 스스로 잠시 잃어버린 것을 갖춘 것으로 감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sup>9)</sup>라고 하여 『明理續論』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傷寒家秘的本』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傷寒을 전문과목으로 하매 실로 仲景先師의 빠진

6) 『中國醫籍大辭典·傷寒六書』: 재이용 “明·陶華(字尙文, 號節菴·節菴道人)著. 成書于明正統十年(1445)”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99쪽)

7) 『傷寒瑣言·辯張仲景傷寒論』: “不幸此書傳世久遠, 遺帙頗多, 晉太醫令王叔和得於散亡之餘, 詮次流傳, 其功博矣. 惜乎以己論混經, 未免穿鑿附會. 成無己氏因之, 順文注釋, 並無缺疑正誤之言, 以致將冬時傷寒之方, 通解溫暑, 遺禍至今而未已也.” (『傷寒六書』, 앞의 책, 2쪽)

8) 『傷寒瑣言·序』: “予晩年得子, 方逾弱冠, 柔軟多病, 習懶不能自強, 必非能受此道者. 日夜痛心, 懼夫吾歿之後, 有病委之庸醫, 足可以傷生滅性.” (『傷寒六書』, 앞의 책, 6쪽)

9) 『明理續論·序』: “庚寅冬, 予病, 足不出戶庭數月, 因觀成無己『明理論』, 止五十證, 辯究詳明, 惜其未備, 於是乃集所見所聞, 比類附例, 斟酌以損益之, 遂成一書, 名曰『明理續論』, 姑以自備遺亡, 非敢傳諸人也.” (『傷寒六書』, 앞의 책, 8쪽)

뜻을 得하여 비록 萬全의 공은 없지만 열명 중에서 가히 팔구명은 살릴 수 있었다. 일찍이 책을 저술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여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 의업을 잇는 자가 그 전함을 얻지 못하고서 욕된 이름이 행해질까 걱정되어, 장차 일생동안 肺腑에 쌓아온 語句와 집안에 숨겨두고 전하지 않은 오묘함 및 一提金, 殺車槌法을 하나하나 뒤에 기록한다. 理論은 證으로 호르고, 證은 脈으로 호르며, 脈은 治法으로 호르고, 治法은 處方으로 호른다. 재삼 거듭하노니 정녕 나의 뒤를 잇는 자손들은 쓸데 없는 처방을 모으고 별도의 이론을 볼 필요가 없으니, 繁雜하고 紊亂한 것을 구별해나가면 그 근원을 알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익숙히 기억하여 오래되면 자연히 정묘하게 꿰뚫게 된다. 庸醫와 더불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여 당시의 의사들로 하여금 비웃지 않게 함이 가하다. 그대는 마땅히 소중히 간직해서 주고받아야 하며 삼가고 삼가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니 고로 경계할 지이다.”<sup>10</sup>이라고 하여 「傷寒家秘的本」의 저술동기를 밝혔으며,

「殺車槌法」에서는 “내가 傷寒에 전념하여 심오한 이치를 깊이 밝히니 脈이 바로면 道가 神機에 숨하고 약을 사용하면 손에 따라 응함을 취한다. 근본에 맞고 理論을 이어서 잘 준비된 殺車槌法을 발명하니 세상에 드물게 존재하는 영구한 養生의 보물이다. 지금 장차 秘驗三十七方과, 就注三十七槌法과, 二十條煎法과, 二十條劫病과 製解法을 殺車槌라 명한다. 실로 내 마음속의 전하지 않은 오묘한 이치이니 나의 후손들은 한자도 가며 여기저기 말고 俗人과 더불어 논하지 말 것이

10) 「傷寒家秘的本·傷寒總論」: “吾老矣, 傷寒專科, 實得仲景先師厥旨, 雖無萬全之功 十中可生八九. 會著有書, 不能盡心刻骨. 因今老邁, 後恐繼業者不得其傳, 有玷名行. 遂將一生所畜肺腑語句, 并家秘不傳之妙, 及一提金, 殺車槌法, 逐一語錄於後. 論注證而證注脈, 脈注法而法注方. 再三叮嚀吾後子孫, 不必集閑方而觀別論, 別繁亂而莫知其源, 必須熟記, 久則自然精貫, 不與庸醫伍, 不使時醫笑可也. 爾宜珍藏受授, 謹之慎之. 毋怠毋忽, 故戒.”(『傷寒六書』, 앞의 책, 49쪽)

며 庸醫에게 보여주지도 말지어다. 마땅히 삼가 보물처럼 신중히 보관하여 나의 지극한 부탁을 여기저기 말지어다.”<sup>11</sup>)라고 하여 「殺車槌法」의 저술동기를 밝혔고,

「一提金」에서는 “내가 비록 傷寒科를 전공하였지만 필히 많은 庸醫와 俗醫의 자랑과 기만 속에서 나왔다. 또한 내가 일생동안 肺腑에 축적하고 집안에 숨겨온 語句와 方法을 모두 이미 갖추어 신고 발휘하였다. 我門의 담장을 넘보는 자가 비록 많지만 번거롭지 않게 片言으로 말하는데 부득이 다시 四經을 스스로 강의하여 명확하게 하니 고로 啓蒙, 捷法, 脈要, 貫珠數를 서술하고 하나하나 注를 열어 보이는 바를 명백히 하였다. 스스로 마땅히 謹慎하여 깊이 숨겨두고 非人에게는 받지도 전해주지도 말며 경박하게 가벼이 흘려버리지 말아 내 마음을 씬에 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12</sup>)라고 하여 「一提金」의 저술동기를 밝혔으며,

끝으로 「截江網」에서는 “傷寒이라는 병은 雜科에 비할 바가 아니니 크게 處方과 診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脈의 이치가 정밀하고 깊어서 艮卦와 震卦가 항상됨이 없고 죽고 사는 것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아 깊이가 밝히기 어렵도다. 진실로 혹시나 傷寒을 치료한다고 칭하는 사람은 羊의 質에 호랑이 가죽을 씌운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한 즉 명예가 허망하게 융성하고 실제의 덕은 병든 것이

11) 「殺車槌法」: “吾專傷寒, 深明奧旨, 脈正則道合神機, 用藥則隨手取應. 的本, 續論, 全備發明, 殺車槌法, 世之罕有, 永爲養生之寶矣. 今將秘驗三十七方, 就注三十七槌法, 二十條煎法, 二十條劫病並製解法, 名殺車槌也. 實爲我肺腑不傳之妙, 我後子孫, 一字不可輕露, 莫與俗人言, 莫使庸醫見爾. 宜謹慎珍藏, 毋違我之至囑也.”(『傷寒六書』, 앞의 책, 114쪽)

12) 「一提金·一提金啓蒙」: “余雖專傷寒科, 必出於庸俗誇誕之醫萬萬. 且余一生所畜肺腑家秘, 語句方法, 俱已備載發揮. 窺我門墻者, 雖有多人, 然片言不繁之要, 不得再四經自講明, 故逆啓蒙, 捷法, 脈要, 貫珠數, 一一開注, 明白所示, 自宜謹慎深密, 勿授受於非人, 毋輕泄於澆薄, 莫負我之用心耳.”(『傷寒六書』, 앞의 책, 146쪽)

된다. 내가 젊어서 학문에 어두울 때 그 어두운 것이 파리가 창에 부딪히는 것 같더니, 후에 한나라 長沙太守 仲景先師의 치법을 얻었는데 石函에 남아 기록되어있는 『遺芳嘉秘』를 얻어 완숙히 외우니 이로써 마음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열리고 手足이 기빠서 춤추게 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 수도 없이 시험하고 수도 없이 경험하였는데 어찌 진실로 중하지 않겠는가! 다만 내가 늙고 그대 역시 앞사람의 어리석은 학문과 같아 병에 임하매 손을 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고로 장차 遺旨를 남겨 손에 옹하고 마음으로 얻는 訣法을 편찬하여 책으로 만드니 이름하여 『傷寒證脈藥裁江綱』이라 한다.”<sup>13)</sup>라고 하여 『截江綱』의 저술동기를 밝혔다.

### 3. 학술의 연원

陶華의 학술연원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문헌상으로 그는 어렸을 때 儒學을 공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康熙 23년에 나온 『浙江通志』에서 “陶華의 號는 節菴이다. 洪武年때의 사람으로, 어려서 儒學을 공부하였는데 우연히 異人을 만나 石函遺書를 받아 마침내 軒岐의 학문을 정묘히 하였다.”<sup>14)</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볼 때 陶華는 당대의 어떤 유명한 스승 밑에서 의업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異人을 만나서 石函

遺書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醫學을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石函遺書에 관한 내용이 『截江綱』중 <傷寒> 부분에서 보이는데, 그곳에서 이르길 “내가 젊어서 학문에 어두울 때 그 어두운 것이 파리가 창에 부딪히는 것 같더니 후에 漢나라 長沙太守 仲景先師의 치법을 얻었는데 石函에 남아 기록되어있는 『遺芳嘉秘』를 득하여 완숙히 외우니 이로써 마음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열리고 手足이 기빠서 춤추게 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sup>15)</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건데 그는 그 이전부터 의학을 공부하던 중 길이 보이지 않다가 우연히 얻은 『遺芳嘉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仲景의 傷寒을 연구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해 나감에 있어서 經典의 문구를 인용하였는데 간혹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이 仲景의 『傷寒論』에 있는 문장을 인용하여 이론을 펼쳐 나갔다.

또한 朱肱의 『活人書』<sup>16)</sup>, 劉守眞의 『病機氣宜保命集』<sup>17)</sup>, 成無己의 『明理論』<sup>18)</sup> 등을 일찍이 널리 읽은 것으로 보아 傷寒과 관련된 이전의 책들을 두루 탐독한 듯 하며 특히 그는 王好古의 『此事難知』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傷寒瑣言』중 <傷寒傳足不傳手經辯>에서 이르길 “일찍이 본 『此事難知』에서 이르길 傷寒이 된지 5-6일에 이르면 점차 변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13) 『傷寒脈證裁江綱·傷寒』: “傷寒之病, 非比雜科, 乃大方脈之首務也。其間脈理精深, 良震無常, 死生反掌, 甚所難明。苟或有稱治傷寒者, 未免羊質虎皮, 然則名譽虛隆, 而實德則病矣。余早年盲學, 昏昏如蠅觸鬚, 後得漢長沙張仲景先師治法, 所得石函遺著, 名曰『遺芳嘉秘』。玩而誦之, 以開茅塞, 手足舞蹈, 不自知也。數試數驗, 豈不珍重哉! 第恐吾老, 子亦猶前之昏學, 臨病無措, 故將遺旨, 應手得心訣法, 纂以成集, 名曰『傷寒證脈藥裁江綱』, 存典朝夕備覽, 以看省己之愚。”(『傷寒六書』, 앞의책, 164쪽)

14) 『中國歷代醫家傳錄·陶華』재인용: “『浙江通志』別號節菴, 洪武年人, 幼業儒, 遇異人授石函遺書, 遂精軒岐之術。”(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人民衛生出版社, 1991, 489쪽)

15) 『傷寒脈證裁江綱·傷寒』: “余早年盲學, 昏昏如蠅觸鬚, 後得漢長沙張仲景先師治法, 所得石函遺著, 名曰『遺芳嘉秘』。玩而誦之, 以開茅塞, 手足舞蹈, 不自知也。”(『傷寒六書』, 앞의책, 164쪽)

16) 『傷寒瑣言·傷寒寒熱論』: “河間言惡寒爲寒在表, 或身熱惡寒爲熱在皮膚, 寒在骨髓者, 皆誤也。而『活人書』亦以此爲表裏言之。”(『傷寒六書』, 앞의책, 20쪽)

17) 『傷寒瑣言·辯張仲景傷寒論』: “觀其晚年悟道, 著『病機氣宜保命集』, 其中羌活湯辛涼之藥, 以治非時傷寒, 其妙如神, 足可補仲景之遺亡, 何其高哉!”(『傷寒六書』, 앞의책, 6쪽)

18) 『明理論·序』: “庚寅冬, 予病, 足不出戶數月, 因觀成無己『明理論』止五十證, 辯究詳明。”(『傷寒六書』, 앞의책, 8쪽)

말이 없으며 혹은 잠을 자면서 한두마디 증얼거리고, 눈이 붉어지며 입술이 타고, 혀는 마른데 물은 마시지 않으며, 땀은 죽을 주면 삼키고 주지 않으면 생각지 않으며, 六脈이 모두 沈數하면서 洪하지 않는데, 心下가 痞하지 않고, 배도 더부룩하지 않아, 대소변이 예전같으며, 혹은 전해진지가 10일 정도 되면 형상이 마치 술취한 사람과 같은데 이것은 熱이 手少陰心經에 전해진 것이다.”<sup>19)</sup> 라고 하여 王好古가 지은 『此事難知』의 문장을 인용하였고, 또한 太陽經의 神藥이라고 주장한 羌活 沖和湯이 九味羌活湯이라는 명칭으로 『此事難知』에 기록되어 있으며,<sup>20)</sup> 그 외에 『傷寒言足經不言手經圖』<sup>21)</sup>의 내용이나, 『六經傳足傳手經則愈』<sup>22)</sup> 등의 내용이 『傷寒六書』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그가 『此事難知』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의 학술사상의 연원은 『遺芳嘉秘』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傷寒書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한 『內經』의 이론을 근거로 삼아 자신이 나름대로 傷寒에 관한 체계를 세워 『傷寒六書』를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 4. 陶華 및 『傷寒六書』의 의학적인 평가

陶華의 『傷寒六書』는 朱肱의 『南陽活人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각 권마다 지어진 시기가

전후로 차이가 있어 내용에 중복됨이 많고 어떤 증후의 변증은 조리가 뚜렷하지 못하며 方藥에도 난해한 폐단이 있어서 후대 여러 醫家들의 평론이 많다.<sup>23)</sup>

먼저 그를 비판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徐春甫는 “애석하게도 仲景의 뜻을 發하지 못하였다.”<sup>24)</sup> 그 이론에 시비와 분별이 없고, 별다른 처방과 처방이 없어, 法으로 취하기에 부족하다.”<sup>25)</sup> 고 하였고, 汪琬는 “命名이 鄙俚하고, 辭句가 重複되며, 辨證이 分明하지 못하고, 方藥이 雜亂하여, 세속으로 전해져 들어가 그 흐르는 禍가 지금에도 그치지 않고 있다.”<sup>26)</sup> 고 하였다. 또한 王宇泰는 “陶氏의 책은 『南陽活人書』를 위협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易水學派의 門牆을 보지 못했으며 『傷寒』이 완전한 책이 아니어서 후학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다고 비난하였으니 仲景의 罪人이다.”<sup>27)</sup> 라고 하였고, 『四庫全書提要』에서는 “陶節菴의 『傷寒六書』는 지금 傷寒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치욕이다.”<sup>28)</sup> 라고 혹평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를 好評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趙心山이 『廬正傷寒六書』를 짓고, 邵武縣儒學訓導를 한 童養學이 崇禎 5년에 『傷寒六書纂要辨疑』를 지었으며, 楊恒山이 다시 『傷寒宗陶全生金鏡錄』을 지었는데 모두 陶氏의 書로 말미암아 저작된 것이다. 童氏는 “仲景이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하였다.”<sup>29)</sup> 라고 했고, “책을 편찬하고 구분하여 번거

23) 東洋醫學大辭典, 慶熙大學校出版社, 1999, 159쪽

24) 『中國醫籍通考·傷寒六書』: “惜其不能發仲景之旨.” (『中國醫籍通考』, 앞의책, 5283쪽)

25) 『中國歷代醫家傳錄·陶華』: “其論雷同, 別無方治, 不足取法.” (『中國歷代醫家傳錄』, 앞의책, 488쪽)

26) 『中國醫籍通考·傷寒六書』: “命名鄙俚, 辭句重複, 辨證不明, 方藥雜亂, 以至俗學傳習, 流禍至今未已.” (『中國醫籍通考』, 앞의책, 5283쪽)

27) 『中國醫籍通考·傷寒六書』: “陶氏之書, 不過剽南陽唾餘, 尙未望見易水門牆, 而輒詆『傷寒』爲非全書, 龔幹來學, 蓋仲景之罪人也.” (『中國醫籍通考』, 앞의책, 5284쪽)

28) 『中醫學術史·재인용』: “『四庫全書提要·說』: 節菴六書, 至今爲傷寒家所詬厲”(嚴世芸,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375쪽)

19) 『傷寒瑣言·傷寒傳足不傳手經辨』: “嘗觀『此事難知』曰: 傷寒至五六日間, 漸變神昏不語, 睡中獨語一二句, 目赤唇焦, 舌乾不飲水, 稀粥與之則嘔, 不與則不思, 六脈沈數而不洪, 心下不痞, 腹中不滿, 大小便如常, 或傳之十日以來, 形如醉人, 此熱傳手少陰心經也.” (『傷寒六書』, 앞의책, 17쪽)

20) 『東垣十種醫書·此事難知』, 大星文化社, 1996, 278쪽

21) 『東垣十種醫書·此事難知』, 大星文化社, 1996, 273쪽

22) 『東垣十種醫書·此事難知』, 大星文化社, 1996, 274쪽

로운 것을 제거하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으니 그 그릇된 것을 명확히 바르게 하였다”<sup>30)</sup>고 하였다. 吳學損은 楊書의 序에서 “仲景의 功臣이요, 節菴의 正傳이다”<sup>31)</sup>라고 하였고, 『痘疹四合全書·凡例』에서는 “傷寒은 仲景을 祖宗으로 삼고, 그 다음은 陶節菴이니 후세의 이름난 사람들의 辨論이 비록 좋으나 결국 후학들에게 편함이 없다”고 하였다.<sup>32)</sup> 이처럼 陶華의 著作은 或毀或譽 되면서 당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 5. 陶華의 『傷寒六書』가 후대에 미친 영향

현재 陶華는 中國醫學史에서 傷寒과 溫病을 滙通한 滙通派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滙通派는 광의의 傷寒病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傷寒學 流派로 『傷寒論』의 내용을 수배에서 십 여배 확대시켰고, 오로지 중점으로 삼은 것은 外感 熱病的 辨證과 治療에 있었다.<sup>33)</sup> 『傷寒六書』에 기록된 溫病에 관한 많은 이론들은 清代에 등장한 溫病學派의 성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傷寒六書』는 그 이후 明代에 李梴이 지은 『醫學入門』 傷寒부분의 저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醫學入門』의 集例를 보면 “傷寒은 陶氏의 六書가 主가 되고 아울러 傷寒論注 및 活人書, 百問百證, 王氏家寶, 仁齊直指 등의 책을 併入하였고, 그 분류의 次序는 活人賦에서 引用하였으

며, 고쳐서 病機와 用藥의 二編으로 나눈 것은 나의 소견이다. 후에 溯淵集을 열람하였는바 논하는 次序가 자못 같은데 애석하게도 그 편을 나눌 겨를이 없도다.”<sup>34)</sup>라고 하여 『醫學入門』이 『傷寒六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許浚이 지은 『東醫寶鑑』중 傷寒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醫學入門』에서 인용하고 있는바 결국 『傷寒六書』는 중국 및 우리나라의 한의학자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III. 結 論

명나라때 『傷寒六書』를 저술한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號는 節菴이며 餘杭사람으로서 1369년에 태어나 1453년에 9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 우연히 한 異人에게서 얻은 『遺芳嘉秘』를 바탕으로 하여 內經, 傷寒論 및 그 이전에 지어진 많은 傷寒書들의 영향을 받아 正統 10년인 1445년에 『傷寒六書』를 저술하였다.

陶華는 당시 의사들이 傷寒을 치료함에 뚜렷한 기준이 없이 오로지 王叔和에 의해 재편집된 『傷寒論』에 의존하여 傷寒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서 傷寒에 관한 診斷, 治法, 理論, 處方을 다시 정리하고 아울러 자신의 평생 임상경험이 後代에 전해 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傷寒六書』를 저술하였다.

그의 책은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의가들에게 王叔和와 成無己를 비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상한의 빠진 것을 보충하고 빈잡한 것을 간략히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호평을 받게 된다.

현재 陶華는 中國醫學史에서 傷寒과 溫病을

29) 『增補中國醫學史·陶華』재인용 : “足補仲景之未備 (洪元植·尹楊烈, 『增補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 384쪽)

30) 『中醫學術史』재인용 : “纂之辨之, 去其繁蕪, 補其闕略, 剖其正訛.”(『中醫學術史』, 앞의책, 375쪽)

31) 『增補中國醫學史』재인용 : “仲景之功臣 節菴之正傳.”(『增補中國醫學史』, 앞의책, 384쪽)

32) 『中醫學術史』재인용 : “傷寒科旨宗仲景, 其次莫若陶節菴, 後世名人, 辨論雖善, 終無便於後學.”(『中醫學術史』, 앞의책, 375쪽)

33)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관한 研究』, 鄭城采, 1999, 170쪽

34) 『醫學入門·集例』: “傷寒以陶氏六書爲主, 併入傷寒論注及活人書, 百問百證王氏家寶, 仁齊直指等書, 而其分段次序, 用活人賦, 改補拆爲病機, 用藥二篇則愚之管見也, 後閱溯淵集, 所論次序頗同, 惜其未暇編耳”(李梴,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94, 20쪽)

滙通한 滙通派로 분류되어 있으며, 『傷寒六書』에 기록된 溫病에 관한 많은 이론들은 清代에 등장한 溫病學派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傷寒六書』는 그 이후 明代에 李梴이 지은 『醫學入門』 傷寒부분의 저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 許浚이 지은 『東醫寶鑑』중 傷寒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醫學入門』에서 인용하고 있는바, 결국 陶華의 『傷寒六書』는 오늘날 傷寒을 연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醫書라고 사료된다.

14.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人民衛生出版社

### 參 考 文 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韓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年
2. 朴贊國, 『懸吐黃帝內經講義』,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年
3.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1992年
4. 李梴,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1994年
5. 洪元植·尹暢烈, 『增補中國醫學史』, 一中社, 2001年
6.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1999年
7. 李云, 『中醫人名辭典』, 國際文化出版公社, 1988年
8. 嚴世芸,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年
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10.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1996年
11.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年
12. 薛己, 『薛氏醫案』, 上海古籍出版社, 1991年
13.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年